

폭로저널리즘의 정기능과 역기능

차 배 근 서울대 교수, 중재위원

1. 폭로저널리즘의 역사와 그 변천동향

오늘 우리가 이 세미나에서 그 주제로 삼고자 하는 「폭로저널리즘」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정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논의에 앞서, 우선 「폭로저널리즘」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부터 명확히 해 놓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것을 좁은 의미로서 하나의 「보도형태」로 본다면 정부나 사회의 부정·부패·비리·위선 등을 파헤쳐서 폭로 보도하는 것이나 그 기사를 의미한다. 그러나 광의로는 그러한 보도에 치중하는 언론의 일반적 풍조 경향 내지는 사조를 가리켜 「폭로저널리즘」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세미나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전자의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후자의 경우를 지칭하는 것인지를 묻고 싶다.

그 다음,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일반적 언론경향 내지 사조(예컨대 1892~1914 년간에 미국에서 크게 유행했던 선정주의적 보도경향을 「황색저널리즘」이라고 부르는 경우에서와 같이)로 볼 경우에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자는 「폭로저널리즘」이 20 세기 초의 미국에서 유행했던 것과 같은 문자 그대로의 「exposés」 또는 「muckraking」 저널리즘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대두되었던 「Crusades」와 같은 것을 말하는지, 또는 1970 년대에 크게 각광을 받았던 「Investigative Reporting」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를 묻고 싶다. 왜냐하면 이들은 서로 비슷한 경향들이었다고 하겠으나, 엄밀히 볼 때에는 그 성격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muckraking」은 「폭로저널리즘」의 일종이었지만 그 명칭 그대로 추문의 단순한 폭로에 치중했던 것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정기능 못지않게 역기능도 컸던 것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폭로저널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언론현상 내지 경향 또는 사조의 역사부터,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하겠다. 왜냐하면 그 역사를 통하며, 「폭로저널리즘」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동시에 또한 그것이 실제적으로 보여 주었던 그 정기능과 역기능도 아울러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1. 부정·부패에 대항한 「Crusades」

사건의 공개적 보도가 언론의 기본적 기능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사건의 모든 보도에는 얼마간의 폭로성이 자연히 개재하게 마련이다. 또한 근대신문이나 잡지가 환생한 이후, 저널리즘에서 가장 많이 즐겨 다루어 왔던 내용 중의 하나가 가십이나 추문 그리고 사회의 비리와 부정 등이었다. 비록 그 목적이 순전히 오락과 증상에 있기는 했지만, 예컨대

19세기 전반의 미국 정론지들은 정치인 특히 정적들의 비리를 폭로하는 것을 본업으로 삼을 정도였다. 따라서 「폭로저널리즘」의 기원을 언제로 잡느냐 하는 문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의 경우,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하여, 그리고 단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치나 사회의 부정·부패를 파헤쳐서 폭로함으로써 그것이 그 시대의 하나의 언론사조로 까지 등장하게 되었던 것은 대체로 1870-80년대였던 바, 이 시기와 이 시기의 그러했던 언론사조를, 오늘날의 「폭로저널리즘」 내지 「발굴조사보도저널리즘」의 기원으로 잡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위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물론 그 이전의 정론지(紙)·지(誌)시대에도 특히 추문의 폭로가 판을 친 바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폭로저널리즘」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반면, 비슷한 정치적 추문을 폭로했다 손 치더라도 1870-80년대의 그것은 이미 독립지(紙)·지(誌)(Independent press)로 전환했던 권위지(紙)·지(誌)들에 의해서,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었으며, 그래서 부정·부패에 대한 언론의 이러한 투쟁들을 가리켜,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후세의 언론사가 들은 「부정폭로」(exposés 또는 muckraking)라는 말 대신에 「부정추방성전」(Crusades)이라는 말로 높여 부르고 있다.

그렇다면 「폭로저널리즘」의 진정한 효시였다고 할 수 있는 이러한 「crusades」는 언제부터 어떻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던가? 그것은 1870년 「New York Times」지가 튀드도당(Tweed Ring)의 부정사건에 대항하고 나섬으로써 시작 되었다고 하겠다. 그 당시 뉴욕시정에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던, 민주당 Tammy 파의 보스였던 William M. Tweed는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 무려 2억 달러라는 공금을 횡령한 바 있었다. 이러한 부정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Times」지는 이를 폭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Tweed 일파는 자신들의 부정을 은폐하기 위하여 「광고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무려 89개 신문·잡지에 돈을 뿌렸으며, 「Times」지에도 500만 달러를 주겠다는 제의를 해 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를 거부한 「Times」지는 계속해서 그 부정을 파헤쳐서 폭로하였다. 그러자 「Harper's Weekly」지도 합세하였는데, 특히 이 시사주간지는 만평을 통하여 그 부정사건을 신랄하게 공격하였다. 이에 당황한 Tweed 일파는 그 만평을 그리던 Thomas Nast에게 위협을 가하는 한편 「20만 달러를 줄 터이니 유럽에 가서 미술공부를 하라」고 매수도 해 보았으나 그는 이를 거절하면서 계속해서 만평을 통하여 부정에 항거하였다.

이러한 「Times」지와 「Harper's Weekly」지의 노력에 의해서 Tweed와 그 일당의 일부는 체포되었고 그 나머지는 유럽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던 바, 불의에 대한 이러한 언론의 승리를 계기로 해서 여러 신문과 잡지들에서도 부정의 폭로에 앞장 서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880년대로 넘어와서는 그것이 「사회정화운동」으로 까지 발전되어 이 시기 미국 언론의 두드러진 경향 내지 사조가 되었다. 즉, 정치적 권력의 부정·부패에 대한 폭로를 통한 그것의 추방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회적 부정과 비리를 폭로, 고발해서 박멸함으로써 깨끗한 사회를 이룩하자는 운동으로까지 발전되었다. 예컨대, 「Chicago Tribune」지는 경제적 부정에 대항, 상인들의 곡물매점행위를 파헤쳐서 폭로, 고발하였으며, 뉴욕의 시사주간지 「Leslie's Illustrated Newspaper」지는 오염된 우유의 추방에 앞장 섰다. 그런가 하면 「New York Tribune」지는 대기오염문제를 파헤쳐서 고발하였다.

이와 같은 언론의 「Crusades」들은 그 목적이 순수했던 바, 정치권력자들의 부정에 대한 폭로와 고발의 경우에도, 그것은 정론지 시대에 흔히 볼 수 있었던 정적들에 대한 정치적 비난과 공격과는 사뭇 다른 것들이었다.

그 즈음, 뉴욕 언론계로 진출 「New York World」 지를 통하여 언론계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켰던 Joseph Pulitzer도 이러한 「Crusade」에 앞장서서, 예컨대 1887년에는 태평양철도회사의 부정사건을, 그리고 그 후에는 뉴욕 전차회사의 수뢰사건을 폭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그 후 Pulitzer는 Hearst의 「New York Journal」지와 경쟁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정치적·사회적 부정보다는 흥미 위주의 가십과 스캔들사건의 폭로에 치중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 진정한 「폭로저널리즘」이 아니라 「열쇠구멍저널리즘」(Keyhole Journalism)이라는 비난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급기야는 소위 「황색저널리즘」(Yellow journalism)을 야기시켜 확산시킴으로써 「Crusades」로서의 「폭로저널리즘」의 언론사조는 사라지고 말았다.

2. 잡지가 앞장섰던 「Muckraking」

그 후 미국의 거의 모든 신문들은 선정주의적이고 상업주의적인 「황색저널리즘」의 경향에 노랄게 물들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1910년대 초까지 계속되었다. 1896년 뉴욕 「World」지(Pulitzer)와 「Journal」지(Hearst)의 일요판 간의 경쟁에서 비롯된 「황색저널리즘」의 경향은 곧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지방지들에게까지도 파급되어 극성을 떨게 되었다.

추문의 폭로는 이러한 황색저널리즘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였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신문의 판매부수를 올리기 위한 상업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의 대부분이 허위적·조작적·선정적인 것들이었으며, 사회에서의 낙오자·희생자·패배자들에 대한 과시적 동정과 대중여론에 편승하는 기만적·자극적인 것들이었다. 예컨대 Hearst의 「New York Journal」지의 그 모든 것들을 거의 그대로 모방했던 콜로라도 주의 「Denver post」는 부정부패에 대한 투쟁에 사회정화운동을 벌인다는 명분으로 정치인·행정당국·기업인들을 닥치는 대로 마구 비난·공격·죄 없는 사람들까지도 그 희생자가 되었다. 그 결과, 동지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었던 Fred G. Bonfils는 마침내 미국신문편집인협회 윤리위원회에 의해, 그 회원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하였다.

신문의 이러한 경향은 잡지도 번졌다. 하지만 그 당시, 잡지들에 의한 「exposés」들 중에는 「Crusades」의 성격을 띤 것들도 적지 않았다. 미국 잡지의 역사를 간단히 소개해 보면, 그 효시는 1741년 Benjamin Franklin에 의해 시도되었던 「General Magazine」이 있다고 하겠으나 그것은 단 6호를 내고 사라지고 말았다. 그 후에도 여러 개의 잡지가 출현했으나, 모두 단명으로 끝내고 말았으며, 19세기 중반에 와서야 잡지가 신문과 같은 대중매체로서 그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의 잡지들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 아니라, 엘리트 층을 위한 사상·문학·예술·정치·과학 등에 관한 소개와 논평 위주의 잡지들이었다.

그러다가 1880~90 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대중을 위한 대중 잡지들이 나타나서 널리 보급되었는데, 이 시기에 창간되었던 대표적 대중지 들로서는 「Collier's」, 「Cosmopolitan」, 「McClure's」, 「Ladies Home Journal」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이들이 대중지로서 그 위치를 확립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지가를 대폭 인하(25 센트에서 10 센트로)함으로써 누구나 사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도 그 원인이 있었지만, 그 보다는 대중들에게 어필하는 다양한 내용의 기사와 함께 화려한 편집 때문이었다고 보겠다. 특히 그러한 내용 중에서도 독자의 관심을 크게 끌었던 것은 바로 「폭로기사」였다.

19 세기 말과 20 세기 초의 미국사회는,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그것의 비대화, 그리고 도시화로 인하여 그에 따른 사회적 부조리도 많았으며 대중들의 사회적 불만감과 좌절감도 팽배하여 있었다. 때문에, 그 당시의 대중지 들이 도시행정의 부패, 사회들의 비리와 부정, 기업 편에 선 노조들의 권리남용 등을 폭로하고 공격하기 시작하자, 그것들은 대중독자들의 관심과 인기를 끌고 호응을 받기에 충분하였던 것이었다.

특히 1893 년 「McClure's」 지가 Standard 석유회사의 비리를 파헤친 기사를 게재하자 대중들은 환호하였다. 이를 계기로 동지는 계속해서 기업의 비리, 시정부의 독직과 부정 · 부패들을 파헤쳐서 폭로하는 데 앞장 섰으며, 이를 따라 바른 잡지들도 서로 다투어서 정치와 사회의 온갖 부정 · 부패 등을 발굴해서 폭로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Harper's」 지 (1850 년 창간)는 뉴욕시의 부정을 들추어 내기 시작하였고, 「Arena」 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업체들에 의한 착취, 빈민가와 사창가의 실상을 취재해서 공개하는 한편 공중위생법과 산아제한법의 입법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하였다.

미국 잡지계의 이러한 현상은 그 당시 일반적인 경향이 되었고, 그 경향은 거의 1910 년대 말까지 계속되었다. 특히 이 시기의 이러한 「폭로저널리즘」의 경향을 가리켜 흔히들

「muckraking」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1906 년 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이 그 당시 잡지들이 너무 이러한 폭로기사에만 치중하는 것을 비꼬아서 그렇게 표현한 데서 비롯되었다. 알다시피 영어의 「muck」란 「오물, 쓰레기」 등을 말하여 「rake」란 「갈퀴로 긁다」, 「살살이 찾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따라서 「muckraking」이란 「오물 즉, 추문을 캐어내서 들추어 내는 것」이라는 말이 되었다.

어쨌든 「muckraking」이 그 당시 잡지 계에서 너무 극성을 부리자, 지식층에 의해 빈축을 사기도 하였다. 대중의 인기만을 겨냥한 「폭로」 그 자체만의 선정적 기사들의 역기능을 우려한 지식인들, 그리고 언론계 내부에서도 양식 있는 언론인 들은 그 폭로보도들을 진실한 「발굴조사보도」(true investigative reporting)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한편, 지나친 폭로 위주의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인기도 떨어지게 되었다. 한편 정부나 사회의 부정 · 부패 · 부조리도 무진장(?)하게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잡지들도 그것들을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잡지들의 「Muckraking」 기사 들 뿐만 아니라, 그것 위주의 잡지 자체들도 서서히 감소하다가 1910 년대 말에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그대신, 시사 뉴스 잡지들이 나타나서 호응을 받게 되었던 바,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Time」 지(1921 년 Henry Luce 와 Briton Madden 이 창간), 「U.S. News & World Report」 지, 「Newsweek」 지 등 이었다. 그리고 이들과 성격은 다른 것들이기는 했지만,

다른 간행물로부터 주요한 내용을 간추린 「Reader's Digest」(1922년 창간), 사교와 흥미관계 기사 위주의 「New Yorker」 등의 건전한 잡지가 나타나서 대중의 호응을 받게 되었다. 한편 신문 계에서는 이미 그 이전부터 범죄나 추문보도 위주의 황색주의 경향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대신 「New York Times」지, 「Christian Science Monitor」지 등의 「깨끗한 신문」들이 사랑을 받으면서 권위지로서 그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3. Watergate 사건과 「Investigative Reporting」

비록 그 성격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었지만, 1870~80년대의 「Crusades」에서 1893~1910년간의 「Muckraking」으로 이어져 온 이른바 「폭로저널리즘」은 1960년대에 와서 다시 대두되기 시작 1970년대의 Watergate 사건을 계기로 크게 각광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Investigative Reporting」 또는 「Investigative Journalism」, 그리고 또한 「Adversarial Journalism」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폭로저널리즘」으로 대두되었던 이 「Investigative Reporting」은 특히 정부의 비위와 그것의 은닉을 파헤쳐서 폭로하면서, 정부의 엄격한 감시자(Watch-dog)로서의 언론의 사명을 강조했다는 점에 그 특성이 있었다. 그래서 정부와 언론간의 관계를 심지어는 대립관계(adversary relationship)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Adversarial Journalism」이라고까지 불려지게 되었다.

물론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언론은 그 이전에도 정부의 잘못이나 위선을 파헤쳐 왔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와서 특히 이러한 보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특히 이 시기에 미국의 대 월남정책을 둘러싸고 국민들의 반정부여론이 고조되었으며, 그에 따라서 정부에 대한 불신감도 높았기 때문이라고 보겠다. 그러면서 미국의 언론들은, 전에는 감히 건드리거나 접근할 수 없었던 국방성이나 CIA·FBI 등의 비밀이나 비위에도 손을 뻗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Dispatch News Service 사의 기자였던 Stymour Horsch는 월남전에서의 My Lai 양민학살사건을 조사해서 과감히 폭로하였으며, 그의 이러한 보도기사는 그에게 Pulitzer 상을 안겨주었다. 또한 파키스탄과 인도간의 전쟁에 관련된 미국정부의 위선을 파헤쳤던 Jack Anderson의 기사도 Pulitzer 상을 받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미국 언론계에서는 이른바 「Investigative Reporting」이라는 용어가 널리 유행하게 되었던 바, 그것은 어떤 비위사건에 대한 피상적인 보도가 아니라 그 사건의 내막을 깊숙이 파헤쳐서 그 진위를 가려내는 보도를 가리키게 되었다. 그 후 이러한 「Investigative Reporting」이 더욱 각광을 받아서, 그것이 하나의 동향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역시 Watergate 사건이 큰 계기가 되었다. 즉, 1972년 「Washington Post」지의 두 젊은 기자였던 Robert Woodward와 Carl Bernstein이, 이 사건을 파헤쳐서 폭로보도 함으로써 급기야는 Nixon 대통령까지 쫓아내게 되자, 이러한 식의 보도는 미국 언론계를 풍미하게 되었다. 많은 신문들이 다투어서 정부와 공무원들의 부조리와 부정, 그리고 나아가서는 대기업들의 횡포와 부정 등을 찾아내서 폭로 보도하게 됨으로써 그 전성기를 이루었다.

이와 같이 신문에서부터 먼저 시작된 「Investigative Reporting」은 그 후 TV에도 확산되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바로 CBS에서 시작한 「60 Minutes」라는 뉴스 프로그램이었던 바, 이에 대한 시청자들의 호응은 대단해서 1979년까지 계속해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으로 그 인기를 누려왔다. 이렇게 TV에까지 확산되면서 「Investigative Reporting」이 크게 유행하자 그에 대한 우려와 비판들도 서서히 나타나게 되었다. 그것은 그 보도들이, 주어진 사건이나 이슈들을 철저하고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대중들의 이해를 촉구하는 대신에 너무 「무엇은 나쁘다」는 식의 보도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들이었다. 또한 충분한 증거와 확증이 없이 사건을 과장해서 폭로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였다. 그래서, Leonard Downie는 당시 언론의 이러한 경향을 가리켜 「New Muckraking」이라고 비꼬기도 하였다.

거기다가 일부 언론인들은,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이루어진 민주정부를 적으로 상정하면서 대립관계 위에서의 언론의 기능만을 강조하는 소위 「Adversarial Journalism」까지 들고 나오면서 정부의 모든 비밀을 살살이 파헤쳐서 폭로하게 되자, 「Investigative Reporting」이 그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Investigative Reporting」은 1970년대 전란에 누렸던 전성기의 명성이 1980년대로 들어오면서 크게 떨어지게 되었다.

II. 언론사조로서의 폭로저널리즘의 본질

폭로저널리즘- 그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1870년대에 「Crusades」라는 이름으로 대두되어 10여년간 유행하다가 사라졌다. 그 후 1890년대에 와서 다시 대두되어 「muckraking」이라고 불려지면서 191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50여년이 지나 1970년대에 다시 대두되어 이번에는 「Investigative Reporting」이라는 명칭 아래 각광을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이와 같은 폭로저널리즘이 대두되고 있지 않던 시대에는 정치와 사회의 부정·부패 등에 대한 폭로 기사들이 없었던 것은 물론 아니었다. 그 어느 시대나, 다소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정부나 사회의 부정·부패·비리·위선 등을 파헤쳐서 폭로, 고발하는 기사들은 존재에 왔다. 물론 이러한 하나하나의 폭로기사와 그 보도행위도 「폭로저널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낱말의 폭로행위보다는 어떤 특정한 시대에 나타나곤 하는 바의 폭로보도에 중점을 두는 언론들의 일반적 풍조·경향 또는 사조들을 일컬어 「폭로저널리즘」이라고 부른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의 언론사조로서의 「폭로저널리즘」의 본질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는데, 왜냐하면 「폭로저널리즘」기능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언론사조가 왜 대두되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그 시대의 사회적·정치적 등의 제반 요인들과 관련시켜서 생각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시대적 및 사회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또 한편 다른 언론사조들과 「폭로저널리즘」이라는 사조를 비교해 볼 필요도 있겠다.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여러 가지 언론사조들과 그 특성

모든 언론이 반드시 다 그러했던 것은 아니나, 언론은 자신이 처해 있는 시대와 사회에서 그 시대나 사회가 요구하고 언론의 사명과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노력해 왔다. 그러한 노력 중의 하나가 바로 「언론사조」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언론이 처해 있는 당대의 사회 속에서, 또는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언론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나 그에 따른 실제의 보도 스타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이러한 언론사조들에는 어떤 것이 있었으며, 그것의 특성은 무엇이었는가?

1) 해설저널리즘(Interpretative Journalism)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새로운 언론사조들이 특히 미국의 언론을 중심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 대표적 언론사조들 중, 첫 번째로 대두되었던 것은 「해설저널리즘」(the Interpretative Journalism)이라는 사조였다.

「언론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하게 그 뉴스를 시대기식으로 기술(chronicle)해서 보도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언론은 이제부터 또한 그것(뉴스)을 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대인들은 오직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 만을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그 사건이 <어떻게> 그리고 <왜> 일어났는가도 알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것(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며 또한 그 사건의 결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도 알기를 원하고 있다」

대체로 이것이 「해설저널리즘」을 들고 나온 언론인들의 주장이었던 동시에 그것이 대두되게 된 배경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나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은 아니었던 바, 그 이전부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언론인들은 적지 않았으며, 또한 뉴스의 해설은 이미 많은 신문과 잡지, 그리고 심지어는 라디오 방송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었다. 해설기사가 신문과 잡지에 끼어들기 시작한 것은 제 1 차 세계대전 기간부터라고 하겠는데, 그 당시 미국의 시민들은 1 차 세계대전의 원인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미국의 언론 들은 그 원인을 설명하는 기사들을 실은 바 있었다.

그 후 해설기사의 보도방식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것은 시사주간지 「Time」이었다. Yale 대학을 갓 졸업하고 나서 1923 년 새로운 스타일의 이 주간지를 창간했던 Henry Luce 와 Briton Hadden 은, 「객관성」(objectivity)이라는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관념을 지양하면서 뉴스의 배경을 설명하고 또한 그것(뉴스)을 해설함으로써 「해설보도」(interpretative reporting)의 개척자가 되었다.

「Time」지의 이러한 해설보도가 독자들의 호응을 얻게 되자, 다른 여러 신문 잡지들에서도 다투어 「해설칼럼」(interpretative columns)을 신설하는가 하면, 경험이 많은 저널리스트에 의해 쓰여진 「논평기사」(commentaries)들도 게재하기 시작하였다. 복잡한 경제 · 사회복지 프로그램이었던 1930 년대 초의 New Deal 정책은 언론의 해설보도를 더욱 촉진시켰으며, 그 후 제 2 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라디오 방송에서까지도 논평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제 1 차 세계대전 기간부터 등장하여 서서히 발전되어 왔던 해설보도는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와 사회기구와 제도, 그리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더욱 확대되고

복잡해지자, 더욱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인식되어, 그것이 하나의 보도 방식이 아닌, 하나의 새로운 언론사조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정치·사회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지만, 또 다른 요인들도 없지 않았던 바, 그 중의 하나는 교육기회의 확대로서 독자들의 교육수준이 점점 높아지자 그들은 「왜」라는 사건의 원인을 더 알기 원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인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사건의 배경에 대한 정보들의 입수가 용이하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 요인들 이외에, 언론계 내에도 그 요인이 없지 않았던 바, 그것은 바로 해설보도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전문 언론인들의 출현과 그에 따른 언론인들의 자신감 이었다고 하겠다.

2) 심층보도저널리즘(Depth Reporting Journalism)

「해설저널리즘」의 사조가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1960 년대로 들어선 미국에서는 또 하나의 새로운 언론사조가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니, 그것은 「심층보도」(Depth Reporting)였다. 이는 앞서의 「해설보도」내지 사조와 그 대두배경은 비슷하나, 그 입장이 다소 다른 것으로서 대체로 다음과 같은 보도방법상의 2 가지 특성을 내세웠다. 즉 첫째는, 주어진 사건의 뉴스에 그 역사적 시간을 조명시키거나 또는 그것을 현재의 동향과 관련 시킴으로써 하나의 뉴스를 보다 넓은 맥락(context)에서 다루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둘째는 주어진 사건에 대한 현재의 상황 또는 그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과 이슈들도 조사해서 서로 연관시키면서 보다 심층적으로 보도하자는 것이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의 뉴스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서 그것을 종래와 같이 피상적으로 다루지 말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정보(hidden information)도 파헤쳐서 보다 깊이 있게 다루자는 것이 곧 이 「심층보도」저널리즘의 사조였다. 특히 이 사조에서 내세웠던 바의 「숨겨져 있는 정보」들의 적극적 발굴은, 뒤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발굴조사 저널리즘사조」(The Investigative Journalism)의 특성과 비슷하지만, 기자 자신들이 그것을 직접 그리고 항상 수행해야 된다고는 주장하지 않은 점이 「심층보도」의 그것과 다른 차이점의 하나였다.

어쨌든, 이러한 「심층보도」저널리즘의 사조는 적지 않은 언론인들의 호응을 받아서, 많은 신문과 잡지에서 최소한 그 일부나마 채택하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 신문의 하나가 「Wall Street Journal」지였다. 이 신문의 제 1 면에 게재되고 있는 소위 「leader 기사」가 바로 심층보도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심층보도」기사의 전형적 모델의 하나로서 널리 정평을 받고 있다.

3) 정밀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

특히 1960 년대는 새로운 저널리즘의 경향 내지 사조의 전성기였다고 하겠는데, 상기 「심층보도」의 사조와 함께, 「정밀저널리즘」(the Precision Journalism)·「뉴 저널리즘」(The New Journalism)·「주창 저널리즘」(Advocacy Journalism) 등의 사조들이 등장, 그야말로 언론의 「제자백가」의 시대를 이루었다. 그것은 1960 년대의 미국사회가

월남전에의 개입, J. F Kennedy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및 사회지도자들의 빈번한 피살, 그리고 잦은 인종폭동 등의 격동을 겪게 되면서, 언론에서도 그에 대처할 방안에 따른 언론의 방향과 새로운 사명이 심각하게 모색되었던 결과였다고 보겠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방식 만으로서는 점점 복잡해지고 급변하는 사회에서 그 많은 바 사명을 다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고 하겠다. 비록 크게는 각광을 받지 못했지만, 일부의 언론인과 언론학자들은 「정밀 저널리즘」이라는 것을 주창하고 나서기도 하였는데, 이 사조는 저널리즘을 보다 과학화하자는 움직임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적 방법을 도입해서, 언론 스스로가 여론조사 · 사회조사를 실시, 정보를 수집하거나 또는 이러한 조사 방법들에 의해서 얻어진 정보와 통계적 자료들을 보도에 폭넓게 활용하자는 것이 이 사조의 기본 입장이었다.

그러나 그 실제적 취재방법을 둘러싸고 입장이 2 가지로 갈리기도 하였는데, 그 하나는 「외부인들에 의해서 얻어진 정보에만 의존하는 대신에 언론 스스로가 직접 사회과학적 방법을 활용, 실증적 조사를 하자」는 소위 「행동적 정밀 저널리즘」(Active Precision Journalism)의 입장이 있던 반면에, 또 하나는 정부기관 대학 · 기업체 등에서 이미 조사해 놓은 자료들을 보도에 활용하자는 「반 행동적 정밀 저널리즘」이 있다.

4) 뉴 저널리즘(New Journalism)

여기서 소개하고자 하는 저널리즘의 사조들이 모두 위통적 저널리즘에서 탈피하자는 것들이나, 특히 그 중에서도 그 전통성 내지 관행에 정면적으로 도전을 했던 것은 소위 「뉴 저널리즘」(The New Journalism)의 입장이었다. 1960 년대에 등장했던 이 사조는, 특히 전통적인 「스트레이트 뉴스」 보도의 방식을 거부하고 나서면서 「기사작성자는 자신의 감정과 가치관 등의 주관적 견해를 그 기사에서 표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그 구체적 방법으로서 소설에서 흔히 쓰고 있는 기법들(예컨대, 대화형식·상황의 재창조 · 등장 인물들의 의상 · 생김새 등의 구체적 묘사 등)을 사용해야 된다고 내세웠다.

이러한 혁명적(?) 저널리즘의 입장을 들고나온 언론인들은, 그 즈음에 베스트셀러로 대중의 인기를 끌고 있던 Truman Capote 의 논픽션 소설 「In Cold Blood」(1965)의 영향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이들은 Capote 의 기법을 모방해서, 그들의 보도기사에서 사건 인물들의 내면적 감정 · 생각을 추측 보도하고 또한 그들의 생김새·의상 그리고 그들과의 대화내용을 자세히 묘사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통적 저널리즘에서는 금기로 삼아왔던 것들이었다. 특히 이러한 「뉴 저널리즘」을 선도했던 대표적 언론인들로서는 Norman Mailer 와 Jimmy Breslin 등을 손꼽을 수 있겠는데, Mailer 는 1967 년 월남전 반대자들이 벌였던 Pentagon 에로의 데모행진에 관한 기사는 바로 이러한 「뉴 저널리즘」의 기법을 사용해서 극적이고 인상적으로 작성, 보도했는가 하면, Breslin 은 1968 년도에 시카고에서 열렸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일어났던 폭동을 같은 수법으로 보도하였었는데, 이들의 기사는 「뉴 저널리즘」의 모델로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뉴 저널리즘」이 대두되자, 많은 신문과 잡지에서 이를 부분적으로나마 채택하기에 이르렀던 바, 예컨대 「New York Observer」 지에서는 전통적 저널리즘에서 금과옥조가 되어왔던 「육하원칙」의 보도방식을 허물어뜨렸는가 하면, 거의 모든 잡지들에

이 사조의 기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Rolling Stone」지는 이러한 식의 기사들로 명성을 높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뉴 저널리즘」의 사조와 그 형식에 대한 비판도 거세게 일어났던 바, 이 사조는 오락제공에만 관심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 그 자체보다는 스타일에, 사실(fact)보다는 픽션을 중시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들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뉴 저널리즘」의 경향은 아직도 특히 잡지언론에서 그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다

5) 주창저널리즘(Advocacy Journalism)

상기 「뉴 저널리즘」과 함께 같은 1960 년대에 대두되어 또한 전통적 저널리즘에 정면적으로 도전하였던 또 하나의 사조는 「주창저널리즘사조」(The Advocacy Journalism)였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1960 년대의 미국 사회는 불안하고 소란하였다. 바로 이러한 사회상에 의해 자극을 받은 언론인들이 들고 나왔던 것이 바로 이 언론사조였던 바, 「언론이 사회의 변혁에 이바지하려면, 기존의 전통적 저널리즘의 모형을 깨고, 그 대신 그 내용과 스타일이 모두 다른 새로운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곧 이들의 주장이었으며, 그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이 바로 이 「주창저널리즘」이었다.

「우리는 뉴스를 단순히 인쇄해서 공개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공개 그 자체로서는 사회의 개혁을 가져 오는데 불충분하다」고 그 당시 「San Francisco Bay Guardian」지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었던 Bruce Brugman 의 이러한 주장은 곧 「주창저널리즘」의 언론철학으로 널리 인용되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찌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던가?

간단히 요약해서 이 언론사조가 내세웠던 것은, 언론인들이 보도에서 자신의 견해(point of view)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신 좌파이면 그러한 입장을, 자신이 급진주의자이면 또한 그러한 입장을, 남녀동권주의자면 그러한 견해를 기사에서 뚜렷이 밝히는 동시에 또한 주창도 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언론사조를 가리켜 「견해저널리즘」(Point of View Journalism)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또한 이 사조의 주창자들은 전통적인 「객관적 보도」를 가리켜 기만적이라고 매도하면서 논평·논설 등의 기사와 스트레이트 기사와의 구별까지는 부정하였다.

이러한 주장의 「주창저널리즘」은, 그 당시 강국사회에서 팽배하고 있던 시민들의 일반적 좌절감, 보수적 기존질서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반영하는 동시에 젊은 층·여성·소수집단·가난한 사람들 및 억압된 자들에 대한 전통적 언론의 무관심에 대한 반발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보겠다. 그러한 연유로, 이 언론사조는 소수집단의 성원에 의해서 운영되거나 또는 소수집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신문이나 잡지들에서 호응을 받으면서, 그런 스타일의 보도가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예컨대, 상기 샌프란시스코의 「Bay Guardian」지를 비롯하여, 뉴욕의 「Village Voice」, 보스턴의 「The Phoenix」지,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Rolling Stone」지가 이러한 언론사조를 대변했던 대표적 언론들이었다. 그런가 하면 방송계에서도 이 사조에 호응했던 인물들이 없지 않은 바, 그 중에는 ABC의 Geraldo Rivers 와 같은 저명한 방송

저널리스트도 들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급진적 · 행동적 · 개혁주의적 언론사조는 전체적으로 볼 때 큰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키지 못하였다.

6) 70 년대의 사조와 「Investigative Journalism」

60 년대에 대두되었던 이상과 같은 새로운 저널리즘의 사조들에 대한 찬반의 논의가 언론계와 학계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한편, 그것들이 일부 언론과 언론인들에 의해서 실행으로 옮겨지기도 하는 가운데, 70 년대에 들어와서도 역시 새로운 사조와 동향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다. 예컨대 「보존저널리즘」 (The Existential Journalism), 그리고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의 「포상저널리즘」의 한 형태로서의 「발굴조사보도」 (The Investigative Reporting)과 「대립저널리즘」 (The Adversarial Journalism) 등이 그것들이었다. 그밖에 「Marketing Approach to Journalism」이라는 일종의 사조도 제기되었다.

이들 중, 「실존저널리즘」의 사조도 역시 전통적인 객관적 저널리즘에 반대한 주관적 저널리즘의 사조였다. 하지만 보도내용의 주관성보다는 저널리스트의 주관성을 강조하면서 저널리스트의 개인적 보존이나 개성내지 성품을 인정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보존적 존재로서의 저널리스트의 개성이 언론활동을 통하러 사회에 투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실존저널리즘」의 입장은 이렇다 할 주목은 끌지 못하였다.

그 다음 1970 년대의 미국 언론계를 풍미했던 저널리즘의 사조는 역시 「발굴조사보도 저널리즘」이었다고 하겠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는 소위 「Marketing Approach to Journalism」이라는 것이 일부에서 제기되기도 했는데, 이는 마케팅의 경우에서와 같은 조사방법을 활용, 독자와 그들의 요구 및 필요를 조사해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의 뉴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입장의 일종의 언론사 측이었다.

2. 하나의 언론사조로서의 「포상저널리즘」

이상에서 미국 언론에서의 경우를 중심으로,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에서부터 최근까지 대두되었던 여러 가지 새로운 언론사조들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Investigative Reporting」이라는 이름의 「폭로저널리즘」이라는 것도 바로 위와 같은 새로운 언론사조들의 하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전신으로서 1870~80 년대에 대두되었던 「Crusades」와 1890~1910 년간에 다시 대두되었던 바의 「Muckraking」이라는 것도 바로 그 시대들의 언론사조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의 언론사조로서의 「폭로저널리즘」은 어떤 시대에 왜 대두되게 되었는가? 그 대두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곧 그것의 본질과 기능을 이해하는 데 관건이 되겠는데, 그것이 「Crusades」식의 것이든, 「Muckraking」의 식이든 또는 그것들의 현대적 형태인 「Investigative Reporting」식의 것이든 간에, 이러한 「폭로저널리즘」이라는 것은 정부나 사회의 부정 · 부패 · 비리 · 위선 등등을 파헤쳐서 폭로 고발하는 것을 그 기본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시대적 또는 사회적으로 그러한 목적을 강조하거나 또는 그러한 목적의 언론기능의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언론은 물론 사회에서 인식될 때 대두되고 있다. 그 역사적 조예는 이미 앞에서 「Crusades」와 「Muckraking」의

대두과정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다. 그 시대의 미국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적 병폐가 만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비록 그것이 나중에는 「황색저널리즘」으로 까지 변질되어, 역기능을 초래하기도 했지만, 1970~80 년대에 위와 같이 「Crusades」 라는 언론사조가 대두되었던 것은 그 시대가 그러한 언론의 경향을 필요로 했고 또한 언론도 그러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1970 년대에 미국에서 「Investigative Reporting)이라는 「폭로저널리즘」이 대두되었던 것도 그 당시의 미국사회의 현실이 그러한 저널리즘의 대두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대 월남전에서의 미국의 실책, Nixon 정부의 위선, CIA 와 FBI 의 권력남용. 에너지파동에 대한 불충분한 대비 등등의 정치적 부패와 함께 또한 사회의 부조리도 만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보겠다.

따라서 「폭로저널리즘」의 본질 및 그것의 정기능과 역기능을 논하려면, 언론이 처해 있는 그 시대의 정치적 · 사회적 환경과 반드시 고려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요인들을 무시한 그 기능의 논의는 피상적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기서는, 어떤 특정한 사회의 현실문제나 그 사회에서의 언론의 현실 등에 관한 문제는 쫓겨 두고, 다만 「폭로저널리즘」이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정기능과 역기능 만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III. 폭로저널리즘의 일반적 정기능과 역기능

그렇다면, 「폭로저널리즘」의 정기능은 무엇이며, 또한 그것이 지니고 있는 역기능들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앞에서 보았듯이 「폭로저널리즘」의 형태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서 논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폭로저널리즘」이 그것의 역사적 과정에서 볼 때 어떤 시대에 대두되었던 어떤 식의 「폭로저널리즘」의 형태를 상정하고 말았느냐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Crusades」 식의 폭로저널리즘의 개념으로 규정하느냐, 아니면 「Muckraking」 식의 것을 말하느냐, 또는 「Investigative Reporting」 식의 「폭로저널리즘」을 의미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정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들 여러 가지 역사적 형태의 「폭로저널리즘」이 다같이 지니고 있는 공통적이고도 대표적인 정기능과 역기능에 대하여 몇 가지만 논의해 보기로 하되, 그 중에서도 특히 「Investigative Reporting」의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진정한 폭로저널리즘의 정기능

그렇다면 먼저, 하나의 진정한 언론사조에서의 「폭로저널리즘」은 어떠한 정기능을 갖고 있는가? 즉 그것은 본래부터 의도하는 바의 어떠한 현재적 정기능 (manifest function)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미리부터는 의도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바의 긍정적 효과들인 어떠한 잠재적 정기능 (latent functions)도 지니고 있는가?

1) 정부와 사회에 대한 파수견기능

폭로저널리즘의 정기능으로서 그 무엇보다도 첫째로 정부와 사회에 대한 「파수견」 기능(Watchdog function)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파수견」 기능이란 Harold D. Lasswell 이나 Charles R. Wright 가 말하고 있는 언론의

「환경감시」 기능(Surveillances function of the environment)보다 적극적인 개념이다.

전통적으로 자유주의언론에서는 그 말은 바 중요한 사명의 하나로서 항상 바로 이러한 파수견으로서의 정부와 사회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조해 왔으며, 바로 이러한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언론자유를 부르짖고 또한 그것의 옹호를 위해서 투쟁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정부의 부정과 부패 · 비리 · 위선 등을 파헤쳐서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부의 노릇을 하도록 만드는 기능을 언론이 앞장서서 담당해 왔으며, 그것은 또한 사회적으로 부여된 언론의 사명이기도 하였다.

언론은 바로 이러한 사명과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론을 가리켜 「제 4부」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곧 언론이 국가의 제 4부로서 행정부 · 입법부 · 사법부에서 하는 일들을 「checking and balancing」 해 주는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부의 언론학자와 언론인들은 정부와 언론이 서로 대립관계(adversary relationship)를 가져야 한다고 까지 주장하고 나섰던 바, 그것은 언론이 정부와 종속관계를 갖게 될 때는 그 말은 바 정부에 대한 파수견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앞에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1970 년대에 미국에서 현대적 의미의 「폭로저널리즘」의 한 형태였던 「Investigative Reporting」 사조가 크게 각광을 받고 있을 때, 일부 언론인들은 한걸음 더 나가서 소위 「Adversarial Journalism」 이라는 것까지도 들고 나왔던 것이었다.

한편 언론은 정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파수견기능도 가지고 있다. 즉 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부조리와 부정 · 부패 · 사회악 등을 폭로해서 고발함으로써 사회를 정화시키는 데 앞장 설 책임과 사명을 언론은 지니고 있다. 바로 이러한 사명의 수행을 위하여 1880 년대의 미국 언론이 벌였던 것이, 앞에서 언급한 「Crusades」 라는 형태의 폭로저널리즘이었으며, 그것은 실제로 사회악을 추방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던 바, 따라서 「폭로저널리즘」이 지니고 있는 중요한 정기능의 하나는 곧 사회에 대한 파수견기능이라고 하겠다.

2) 사회규범의 강화기능

그 다음, 둘째로 「폭로저널리즘」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정기능으로서 사회규범의 강화기능(reinforcement function of social norms 또는 ethicizing function)을 들 수 있다. 이 기능은 방금 위에서 언급한, 사회에 대한 언론의 파수견기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서, 반사회적 사회성원들의 반사회적 행위들을 언론이 파헤쳐서 사회에 공개함으로써 모든 사회성원들의 사회적 내지 윤리적 규정을 강화시키는 「폭로저널리즘」의 기능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언론이 반사회적 성원들의 부정·부패·범법·권력남용 등의 잘못된 행위들을 다른 사회성원들에게 공개해서 지탄을 받게 함으로써 권선징악의 사회적 규범과 사회적 윤리를 강화시키는 현재적 및 잠재적 정기능을 말한다.

Melvin L. DeFleur 와 Everette E. Dennis 는 이러한 기능을 쉽게 풀이해서 「모든 국민들을 정직하게 살게 만드는 기능」 (to keep people honest) 이라고 표현한 바 있는데, 이들에 의하면 1970 년대에 미국 언론에서 「Investigative Journalism」 이 대두되었던 것은 바로 그 시대에 Nixon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지도자들과 공무원들이 부정직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부정직을 폭로해서 사회적 지탄을 받게 함으로써 정직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언론인들이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폭로저널리즘」의 사회규범강화기능이 앞서의 그 사회감시기능과 다른 점을 구태여 구별해 본다면, 사회감시기능을 주로 반사회적 행동을 자행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비행을 고발해서 그들을 제외시키는 데 있는 반면, 사회규범강화기능이란 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성원들에게 사회 악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켜 다같이 사회의 규범이나 윤리를 강화시켜 나가게 만드는 기능을 뜻한다고 하겠다.

3) 사회개혁기능과 사회안정화 기능

「폭로저널리즘」은 이상에서 언급한 그 중요한 정기능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데, 그 중요한 것으로는 사회개혁기능 및 사회 안정화 기능을 들 수 있다. 물론 사회개혁기능은 앞에서 언급한 언론의 「사회감시기능」과 밀접한 것이기는 하지만, 언론이 사회의 부정과 부조리 등을 폭로, 고발하는 것은 단순히 사회정화를 통하여 기존사회를 그대로 유지시키자는 것에만 그 궁극적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니다 그와 함께 사회를 개선 내지 개혁하자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전통적 언론의 사조는 기존질서의 유지에만 치중해온 점이 없지 않다. 그래서 개혁주의적 언론인들은 전통 언론의 「현상유지」기능에 반발, 새로운 언론사조들을 들고나왔던 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이 앞에서 언급한 「주창저널리즘」(Advocacy journalism)이었으며, 「Investigative Journalism」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계통의 새로운 언론사조이다. 왜냐하면 이들 새로운 언론사조는 모두가 전통적 저널리즘의 사조에 대한 반발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겠는데, 흔히 「Objective Journalism」이라고 불리는 전통적 저널리즘은 「객관성」(Objectivity)이라는 것만을 내세우면서 되도록 사회의 개선이나 개혁에 대한 언론인들의 주장은 기피해 왔던 것이다. 그 반면, 「Subjective Journalism」이라고 통칭되고 있는 새로운 언론사조들 - Investigative Reporting 을 비롯하여 New Journalism 등 앞에서 살펴본 2 차 대전 이후의 언론사조들은 그 모두가 「객관성」이라는 것만을 너무 강조함으로써 전통적 언론은 사회개혁의 의지가 빈약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창개혁을 위해서는 언론인들의 주관적 견해의 표현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들고 나왔던 것들이다.

그 다음, 「폭로저널리즘」은 사회의 안정화에도 기여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의 폭로를 통한 사창적 부정과 부패 등의 추방은 사회의 안정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사회의 부정과

부패들이므로 이러한 것들의 추방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폭로저널리즘」은 궁극적으로 사회의 안정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4) 언론 자체에 대한 지위부여기능

마지막으로 「폭로저널리즘」의 또 하나의 중요 정기능으로서 언론 자체의 지위부여기능(Status Conferral Function)을 들 수 있다. 여기서 특정 내용과 형식의 기사를 계속 보도함으로써 그것이 가져다 주는 언론의 제고를 말하는데, 진실되고 공정하며 과감한 폭로기사들의 보도는 언론의 지위를 제고시켜 주는 기능도 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사회에 대한 「폭로저널리즘」의 직접적인 정기능은 아니라고 하겠으나, 언론의 지위의 향상은 결과적으로 언론의 다른 기능들-예컨대 뉴스 보도기능·지도기능 등도 촉진시킴으로써 정치나 사회에 이바지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언론은 자신의 권위와 지위를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언론이 그 「폭로저널리즘」을 통하여 자신의 지위를 향상시킨 예는 언론사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그 대표격인 예의 하나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 언론의 「Crusades」였다. 그 당시 미국 신문들은 정론지시대에서 겨우 벗어나서, 「독립지」(independent press, 중립지) 시대의 개막을 부르짖고 있었지만, 정론지시대에서 신문들의 불공정성과 편파성을 경험했던 시민 대중들은 신문들의 그러한 구호에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신문들이 과감한 「Crusades」운동을 전개하자, 시민들은 거기에 호응하면서 신문의 기능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신문의 지위가 향상되어 진정한 「독립지시대」로 들어설 수 있었다.

또한 비근한 예로서, 1970 년대에 미국의 언론들이 Watergate 사건을 과감히 파헤쳐서 폭로하자, 언론의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음은 물론, 그에 대한 인기도 대단하게 되어, 신문방송학과의 지원자까지도 거의 2 배로 증가할 정도였다. 이와 같이 「폭로저널리즘」은 언론 자체에 대한 지위부여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폭로저널리즘」을 이용하여 언론의 지위를 향상시키거나 인기를 끌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2. 폭로 저널리즘의 현재적 · 잠재적 역기능

위에서 진정한 「폭로저널리즘」의 중요 정기능만을 몇 가지 들어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여러 가지 역기능(dysfunctions)들도 내포하고 있다. 그 역기능들은 크게 2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 그 첫째는 현재적 역기능(manifest dysfunction)으로서, 이는 언론이 「폭로저널리즘」을 의식적으로 악용할 때 야기되는 역기능들이다. 예컨대 어떤 신문이나 잡지가 그 판매부수를 늘릴 목적으로 폭로 기사를 선정적으로 보도할 때 야기되는 바의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부정적 결과들을 말한다 그 다음, 둘째로 잠재적 역기능(latent dysfunctions)이란, 본래의 그 목적이나 의도와는 다르게 「폭로저널리즘」이 우연히 야기시키게 되는 바의 예상하지 못했던 역효과나 부정적 효과(negative effects)들을 말한다.

매스 미디어는 바로 이와 같은 잠재적 역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어떤 폭로 기사를 보도했다고 하더라도, 그 의도와는 다른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그 역기능의 책임은 본래의 의도가 그렇지 않았다는 이유의 제시만으로는 면책될 수 없다. 그렇다면 그것이 현재적인 것이든 또는 잠재적인 것이든 간에, 「폭로저널리즘」은 어떠한 역기능을 지니고 있는가?

1) 개인의 권익침해에 관련된 역기능

「폭로저널리즘」의 역기능은 그것의 정기능에 못지않게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두 열거할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을 몇 가지로 묶어서 생각해 보겠는데, 우선 개인의 권익침해와 관련된 역기능들로서는 명예 훼손과 사생활(privacy)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fair trial) 등의 침해가 들 수 있다. 「폭로저널리즘」의 역기능 중에서도 가장 많은 문제점으로 노출되어 온 것은 역시 명예훼손이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언론의 고발·감시기능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명예는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의 공익을 위하여 어떤 비리를 폭로·고발할 때에도, 그 보도내용은 ①진실이어야 하고 ②공평한 논평이어야 하며 ③그 보도 행위 자체는 업무상의 정당행위야 한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결여할 경우, 그것은 그 사건에 관계된 개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역기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언론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특히 「폭로저널리즘」에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많이 나타나게 되는 역기능은 사건에 직접 관련된 당사자들의 명예훼손보다는 그 가족들이나 직접 관계없는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그 다음, 「폭로저널리즘」의 역기능으로서 빈번히 말썽이 되고 있는 것은 사생활의 침해이다. 이는 그 보도내용에서 뿐만 아니라 사건의 취재과정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역기능은 언론의 고발기능을 빙자해서 그 판매부수나 증가시키려는 상업주의적 언론기관들에 의해서 주로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신문이나 잡지들이 사회의 공익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흥미위주의 추문들을 다루어 폭로하면서 개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함으로써, 한때 미국에서도 「폭로저널리즘」을 가리켜 「Keyhole Journalism」이라고 비꼬아 부르게 되었으며, 이러한 언론들의 경향은 급기야 황색저널리즘을 유행시키게 되기도 하였다.

한편 「폭로저널리즘」의 또 하나의 역기능으로서 자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개인의 권리」(fair trial)에 대한 침해의 문제다. 즉 언론이 어떤 사건을 폭로·고발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신문재판」(newspaper trial)이 이루어질 경우 특히 미국과 같이 재판에서 배심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배심원들이 언론의 영향을 받아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1960년대 말에 미국 언론들이 월남에서의 My Lai 사건을 폭로·보도했을 경우도, 그 사건의 주범자로 지목되었던 미군장교가 재판을 받지 않고 석방되고 말았다.

2) 사회와 국가의 공익침해와 관련된 역기능

그 다음, 사회의 공익과 관련된 「폭로저널리즘」의 역기능으로서, 특히 사회악을 폭로·고발할 때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다루거나 또는 선정적으로 보도할 경우에는 오히려 사창의 공익이나 윤리를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컨대 사회부정의 그 수법들까지를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게 폭로한다든가, 폭로에만 급급한 나머지 사회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까지를 구체적으로 노출시킨다든가, 흥미 위주의 사회악에 관한 소재만을 발굴해서 폭로한다든가,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흥미 위주의 추문들을 폭로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오히려 사회악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익과 관련된 정치적 문제에서도 간혹 폭로저널리즘은 그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는데, 그것은 특히 언론이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건설적 입장에서 정부의 잘못을 폭로하지 않고 그대신 「폭로를 위한 폭로」만을 일삼을 때 주로 야기되는 것들이라고 하겠다. 예컨대 외교상에서의 국가비밀이나 계획의 폭로라든가, 또는 안보에 관련된 사항들의 폭로라든가 하는 것들은 국익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내정치에 있어서도, 정부나 정치인들의 부정과 부패, 비리 등을 폭로·고발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을 조장하며 정치 그 자체에 대한 무관심 냉함 등의 풍조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치적인 「폭로저널리즘」이 국민대중들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국가의 정의 방향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좌절의 돌파구로 유도하는 식이 될 경우에는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여, 나아가서는 정치체제 그 자체를 혼란 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와 언론간의 관계를 대립 내지 적대관계로 보면서 정치적 문제의 폭로만을 주로 강조하였던 「Adversarial Journalism」의 경향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3) 사회 전반에 미치는 기타 여러 가지 역기능

이 밖에도 「폭로저널리즘」이 야기시킬 수 있는 역기능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역기능들이 실제로 나타났던 사례들도 적지 않은데, 그 중의 하나로서는 사회적 불안감의 조성을 들 수 있겠다. 또한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사회적 공포감의 조장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역기능은 「폭로저널리즘」이 사회개선에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사회의 온갖 부정·부패·비리·범죄 등을 파헤쳐서 마구 폭로할 경우에 야기되는 것들로서, 이들은 국민들을 과잉자극, 그들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해 주어 오히려 사회의 안정을 저해할 수도 있게 된다. 이것과 연관된 또 하나의 역기능으로서 국민들에게 그릇된 사회관을 형성시켜주는 역효과도 들 수 있겠다. George Gerbner가 내세우고 있는 매스 미디어의 「문화계발효과이론」(the cultivation effects theory)에 의하면, 언론은 인간들로 하여금 현대사회에 대한 그들의 관념을 형성시켜 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학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소위 「문화지표」(cultural indicators)라는 것을 개발, TV에서 묘사하고 있는 현대사회와 시청자들이 갖고 있는 현실사회에 관념을 조사해서 그것들을 서로 비교, 제시하고 있는데, 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TV를 많이 시청할수록 그러한 시청자들은, 「현실세계」가 TV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대로의 「세계」와 같다는 식의 사회관을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실세계」는 부정과 부패,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는 무서운 세상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관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신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한 행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마저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Gerbner 가 주장하듯이, 만약 매스 미디어가 인간들의 사회관을 형성시켜 주는데 중요한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본다면, 지나칠 정도로 정치나 사회의 부정·부패·비리 등을 폭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간들에게 좋지 않은 사회관(비록 현실사회가 그렇다손 치더라도)을 형성시켜 줌으로써, 건전한 사회풍조나 사회관을 조성시켜 주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사회의 부정과 부조리들을 심화시켜 줄 수도 없지는 않다고 보겠다. 다시 말해서, 「폭로저널리즘」은 사회의 규범을 강화시켜서 건전한 풍토를 조성시켜 주는 정기능을 많이 갖고는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규범을 약화시켜 줄 수도 없지 않은 바, 왜냐하면 일반대중들 중에는 그 부정과 부패의 폭로를 권선징악의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부정의 방법을 배우며, 「세상이 다 그런데, 왜 나만 그렇게 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에서 자신의 부정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언론 자체에 미치는 역기능

마지막으로, 「폭로저널리즘」은 언론 그 자체에게도 좋지 않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데, 물론 이러한 것들은 「폭로저널리즘」의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 황색주의 저널리즘이나 상업주의 저널리즘으로 변질될 때 야기되는 것들이다. 그 실례는 앞에서 「폭로저널리즘」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 볼 때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앞에서 그 정기능을 말할 때, 언급한 바와 같이, 폭로저널리즘은 언론에 대한 사회의 신뢰와 인식을 높여 주어 그 지위와 권위가 향상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폭로기사들이 대중의 인기에 영합, 흥미 위주의 가십 등의 폭로나, 대중의 호기심만을 만족시켜 주려는 폭로 위주의 폭로만을 일삼을 때에는 언론의 지위나 권위가 실추되는 부작용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또한 폭로기사에서 그 논평이나 결론이 공정치 못할 경우, 또는 그 보도내용이 진보성을 결여할 경우에는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게 된다. 그런가 하면, 사회의 공익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부족하고 흥미 위주의 소재만을 다루는 동시에 그것을 또한 저속하고 부적당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과장해서 선정적으로 보도할 경우에는 언론의 품위가 저하된다. 간단히 말해서, 폭로저널리즘이 그 정도를 벗어날 경우에는 언론 스스로의 언론윤리를 저해하게 되어 사회의 목탁으로서의 그 맡은바 사명을 수행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IV. 결론

폭로 저널리즘의 수용방향과 그 과제

「폭로저널리즘」-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협의로는 정치 악, 사회적 부정·부패·비리 등을 폭로·고발하는 보도나 그 기사를 의미한다. 그러나 광의로는 그러한 폭로보도에 치중하거나 또는 그것들은 언론의 사명의 하나로서 특히 강조하는 언론의 시대적 경향 내지 사조를 뜻한다. 그리고 협의의 폭로 저널리즘은 특정시대나 사회에 관계 없이 모든 언론에서 존재해 왔으며, 또한 존재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러한 협의의 「폭로저널리즘」 보다는 광의의 「폭로저널리즘」 즉 하나의 경향이나 사조로서의 그것에 대하여서만 몇 가지 생각해 보고 싶다. 왜냐하면, 만약 이러한 언론사조가 우리나라에서 현재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면, 또는 앞으로 그러한 사조가 우리 언론에서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거나 실천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보다 우리들에게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 언론사조로서의 폭로저널리즘의 수용방향

세계의 언론사를 살펴 보면, 재미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모든 국가나 사회의 언론이 비슷한 언론사적 단계나 과정을 밟아 오고 있다는 점이라고 보겠다. 그것의 적당한 실례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의 주간지나 잡지들에 나타났던 경향을 보면, 1960년대에는, 한때 미국에서 유행했던 것과 비슷한 황색주의경향이 특히 주간지를 중심으로 해서 유행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이 비판을 받는 동시에 대중독자들의 인기를 잃게 되자 월간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폭로저널리즘」의 경향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은 감이 없지 않은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미국 언론에서 「황색저널리즘」 시대의 말기에 나타났던 바의 「Muckraking」의 경향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겠다.

한편 그것들이 우리 언론에 도입되어 크게 대두된 적은 없다고는 하겠으나, 우리 언론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대두되었던 바의 근래의 여러 가지 새로운 언론사조들-예컨대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은 해설·심층·뉴 저널리즘의 경향이 그때 그 때 조금씩은 흘러 들어 왔었다고 보겠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가 「폭로저널리즘」을 토의의 주제로 삼게 된 것도, 최근에 미국 언론에서 각광을 받았던 「Investigative Journalism」의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흘러 들어서 그러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도 생각해 본다. 그것이 사실이든 또는 그렇지 않고 자생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든 간에, 오늘날 우리는

「폭로저널리즘」이라는 하나의 언론경향이나 사조를 놓고 세미나를 벌이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수용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하나의 토의사항으로 제기하고 싶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폭로저널리즘」은 그 정기능과 함께 여러 가지 역기능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것의 수용방향이나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일은 없겠지만, 외국에서 그것이 유행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 보자는 무비판적 도입이 있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그 보다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그러한 언론사조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고 있으며, 만약 필요하다면 그것을 어떻게 올바르게 도입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부터 심각히 생각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폭로저널리즘」은 그것이 센세이셔널리즘으로 흐르거나 또는 그 보도내용에 진보성이 결여될 때, 그 말은 바 정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그 대신 언론의 권위나 품위의 저하를 가져오게 되고 신뢰성을 잃게 되는 역기능이 초래되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 가까운 일례의 하나는, 바로 1970년대 말에 미국에서 「Investigative Journalism」이 그 인기를 잃게 된 과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976년, 그 자신들을 「Investigative Reporters and Editors」(IRE)로 지칭했던 일단의 미국 기자들은, 폭로기사의 취재차 아리조나에 갔다가 죽음을 당한 Don Belies 기자의 피살사건을 조사해서 보도하기 위해 그곳으로 갔다. 이것은 「Investigative Reporting」에서의 최초의 팀 취재의 방식(team approach)이기도 하였다. 그들이 조사·취재한 기사들은 여러 도시의 신문에 대서특필 되었다. 그러나 그 보도내용이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언론계 내외로부터 많은 비판을 듣게 되었다.

그 후 1980년에 또 한 차례 「Investigative Reporting」 내지 저널리즘에 대한 비판이 크게 일어났다. Watergate 사건을 폭로, 대단한 명성을 얻었던 두 기자 중의 한 사람인 「Washington Post」지의 Robert Woodward 기자가 Scott Armstrong 기자와 함께 이번에는 대법원의 내막을 파헤쳐서 폭로하였다. 그 기사에는 수 백 명의 증인들의 말이 인용되어 있었으나,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그들 중의 많은 사람들은 증인으로서의 자격조차 갖추고 있지 못한 거리가 먼 인물들이었다. 또한 그 기자들이 캐냈다고 주장한 비밀이나 사항들도 실제로 밝혀본 결과, 신빙성이 없거나 사실과 다른 것들이었다. 이 기사들의 내용들을 나중에 다시 조사해서 확인해 보았던 한 언론인은 평가를 내리기를, 「만약 Woodward 와 Armstrong 의 기사가 대학의 term Paper 이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F 학점 짜리였다」고 꼬집었다.

어쨌든 이러한 일면의 「investigative Reporting」 기사들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언론계 내외의 비판을 계기로, 1980년대에 와서는 미국에서 폭로저널리즘에 대한 인기가 많이 떨어졌다. 이러한 사실은 「폭로저널리즘」이라는 보도형식이나 사조의 수용에는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고 보겠다.

2. 폭로저널리즘의 수용상의 몇 가지 과제

끝으로 「폭로저널리즘」이라는 보도양식이나 그러한 것을 강조하는 사조의 수용이나 실제적 실천에 앞서서, 특히 우리 언론이 해결해야 될 몇 가지 과제를 생각해 본다면, 그 첫째로는 우선 언론인들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전문화」(professionalizing)란, 언론인들이 어떤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Richard Hall 은 주장하기를, 언론인들이 아무리 재교육을 받는다, 윤리강령을 선포한다, 협회를 만든다고 법석을 떨더라도 언론인 자신들의 마음가짐, 즉 태도가 전문적 성향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이를 바꾸어 말하자면,

언론인들이 자기분야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사회에 대한 진정한 봉사의 신념을 품게 될 때 비로소 언론인들의 전문화는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 다음, 둘째로는 언론의 윤리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는 전문화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이지는 않지만, 언론인들이 투철한 윤리의식을 갖고 있을 때만

「폭로저널리즘」의 정기능이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반면, 만약 언론윤리강령이나 그 실천요강에 명시된 언론윤리마저도 준수하지 않는다면 「폭로저널리즘」은 그 정기능보다는 역기능만을 야기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마지막으로는 언론자유가 보장되는 동시에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더 높아져야 하며 또한 건전한 비판을 수용할 줄 아는 정치지도자나 기업인, 그리고 사회 인사들의 자세도 재고되어야 한다. 건전한 비판을 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고서는 사회목탁으로서의 언론이 그 폭로보도를 통하여 그 맡은 바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서울대학교국어과, 미국 켄트 주립 대학교 대학원(철학박사)

□ 저술: 「커뮤니케이션학 개론」, 「사회과학연구방법」, 중국전근대언론사」, 「태도변용이론」, 「매스커뮤니케이션 효과이론」 외 다수

□ 현재 서울대학교 신문학과 교수, 언론중재위원회위원